



Sungmin Welfare Foundation

사랑하는 사람들

2025 vol.30

사회복지법인 성민

Contents

04

창조적 도전과 전문적 성장을 위한
「제3기 우수직원 해외연수」

08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년,
발달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만든다」

12

서울시 지정 비영리 전문예술단체
「우리행성문화예술단」

16

사회복지법인 성민

18

성민사회복지연구소

21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22

성민복지관

28

마들종합사회복지관

34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38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42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44

성민뉴스

52

후원

53

후원자·자원봉사자 소개

58

안내·모집

60

홍보

발행일

2025.11.

발행인

사회복지법인 성민 이사장 유재필
성민복지관장 차현미
마들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인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양인숙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남영란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박신영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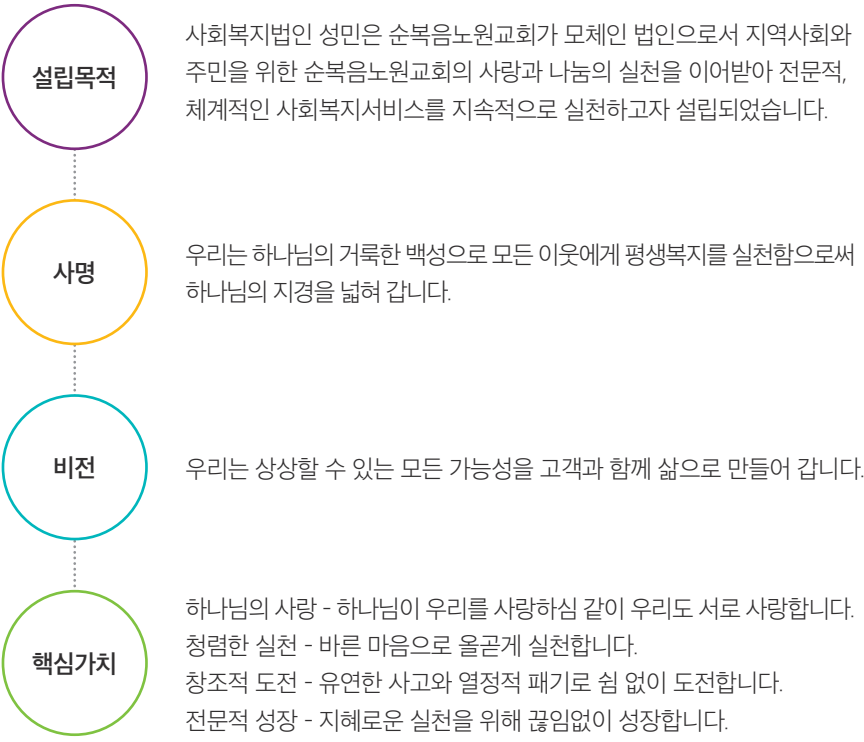
강수지, 김해린, 남슬기,
문채영, 박선희, 박현우,
유원호, 조현식, 최효정

디자인

그래픽오션

“ 평생복지 평생친구 하나님의 성민 ”

사회복지법인 성민



섬기는 사람들

이 사 장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원로목사)

이 사

이상용(순복음노원교회 담임목사)
김진숙(송파구방이복지관장)
김진완(前신내노인종합복지관장)
서옥인(순복음노원교회 목사)
양길승(前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유수진(사회복지법인 성민 상임이사)
이기선(이황가정의원장)
이준우(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흥섭(순복음노원교회 행정국장)
차현미(성민복지관장)

감 사

이동섭(국기원장)
조명현(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창조적 도전과 전문적 성장을 위한 「제3기 우수직원 해외연수」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우수직원의 사기진작과 산하기관 간 교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를 마련하였다. 2015년 1기, 2016년 2기에 이어, 약 10년 만에 열린 제3기 우수직원 해외연수, 지금부터 4박 6일의 여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설렘으로 시작된 여정

출발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는 기대감이 가득하였다. 공항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모두가 활짝 웃었으나, 막상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청량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는 순간, 긴 비행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아, 드디어 도착했구나”라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직원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미소가 번졌다.



시드니 복지 현장 탐방

이번 연수의 핵심은 호주 시드니의 복지 현장을 살펴보는 일이었다. 그 가운데 인상 깊은 곳은 웨이사이드 채플 (Wayside Chapel)이었다. 웨이사이드 채플은 교회에서 출발한 비영리단체로 노숙인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카페와 원주민 문화센터, OP SHOP(중고매장)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속 누구나 이용하며 침과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전반에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입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복지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만들기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가독성을 높인 층수 안내



편리한 이용을 돕는 무인 정산기

힐링의 순간들

이번 연수의 또 다른 즐거움은 문화 체험과 관광이었다. 시드니의 대표적인 해변인 본다이 비치와 갭파크, 왓슨스 베이를 둘러보며 바닷바람을 맞았을 때, 직원들은 절로 감탄을 자아냈다. 탁 트인 절벽 풍경과 고즈넉한 어촌 마을의 정취는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 주었고, 시드니하버 크루즈에서 바라본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는 사진으로만 접하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감동을 주었다.

하이드 파크와 세인트메리 대성당에서는 잠시 고요히 머무르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시드니현대미술관에서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감상하며 예술적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탁 트인 절벽 풍경이 인상적인 갭 파크



고즈넉한 어촌 마을 분위기의 왓슨스 베이



크루즈에서 본 오페라하우스



시드니현대미술관

포트스티븐스에서는 특별한 체험이 이어졌다. 사막을 가르며 달리는 사륜구동 차량과 모래썰매는 짜릿한 스릴을 선사했고, 스타튼 비치에서 마주한 바다와 사막의 풍경은 장관이었다. 이후 돌핀 크루즈에서는 바다 위로 힘차게 뛰어오르는 돌고래 무리를 가까이에서 보며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시드니 동물원에서는 캥거루와 코알라를 가까이에서 만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세 자매 봉과 에코 포인트에서는 웅장한 자연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로라 마을에서는 아기자기한 상점과 거리 풍경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짜릿한 모래썰매



시드니 동물원에서 만난 동물들



블루마운틴과 함께 찰카



블루마운틴 안에서



로라 마을의 무법자 앵무새



여정 속 작은 호사

연수의 마지막에는 시드니 대학교와 패딩턴 리저뷰어 가든스, 더 록스, 바랑가루 등을 거닐며 도시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하였다. 특히 시드니 천문대 공원에서 마주한 탁 트인 하버 뷰는 여정의 끝을 정리해 주는 듯한 고요한 울림을 남겼다.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드니 대학교



패딩턴 리저뷰어 가든스

하나되는 더 큰 성민으로

시드니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여유로운 일상 또한 인상 깊었다. 바닷가에서 산책을 즐기고 공원에서 담소를 나누며 카페 앞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속에는 삶을 대하는 넉넉함과 여유가 묻어 있었다. 이번 해외연수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보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었다. 낯선 땅에서 마주한 다양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함께한 동료들과의 웃음과 나눔은 다시금 서로를 든든히 지지하는 힘이 되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배우고 도전하는 경험은 직원 개개인에게 큰 자산이 되었으며, 이 배움은 곧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성민은 익숙한 길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적으로 도전하며, 동시에 전문적 성장을 이루는 복지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누구나 여유롭고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박현우 박성한 강수지 이민정 박지혜 정은영 최정민 문채영

박현우 저의 첫 호주여행! 배움, 네트워크, 힐링 측면에서 모든 날들이 영원히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박성한 호주도 경험하고 산하기관 실무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수지 함께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정 호주에서의 재충전의 시간이 다시 한번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달려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박지혜 앞으로도 다른 분들과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은영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과 지역사회에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민 산하기관 직원 간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문채영 연수를 마쳤지만, 제 마음은 아직 시드니에 체류 중입니다.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년, 발달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만든다」

「평범한 일상」을 위해 걸어온,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년

2005년 11월, ‘발달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소명 아래 문을 연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단순한 보호의 공간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복지 실천의 장으로 자리해 왔다.

센터는 순복음노원교회에 다니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일상생활 활동, 인지활동, 취미·여가활동, 특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 지원하고 이용자의 하루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 여정은 센터를 신뢰하며 함께 걸어 온 이용자와 가족, 그리고 그 곁을 지켜 온 직원, 후원자, 지역사회의 마음이 모였기에 가능하였다.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모든 순간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하루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 센터의 활동은 ‘평범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용자가 스스로 하루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일상을 채워 가도록 하였다.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세심하게 살피며, 이에 맞는 지원을 이어 갔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였다. 일상생활훈련을 통해 자립의 기초를 다졌고, 사회참여 활동으로 관계를 넓혔으며,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는 선택의 경험을 쌓고, 작은 성취 속에서 자신감을 키워갔다. 이러한 시간들이 모여, 보호의 틀을 넘어 각자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센터의 하루는 언제나 이용자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이용자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조금씩 현실로 바꾸어 가는 계기가 되어 왔다.

「나만의 생일」

‘생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이용자가 원하는 하루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표현하는 힘이 자랐으며,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한층 성장하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내가 그린 여행」

이용자가 직접 여행의 목적지와 일정,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기결정능력과 주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행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경험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키웠고, 하루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일에 자신감이 자라났다.



「지하철투어」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이동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 대중교통 활용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지하철 노선을 살피고 길을 찾아가며 실제로 탑승하는 과정을 통해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낯선 곳에서도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역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성민에서 피어난 나의 하루

이용자
인터뷰 중

"성민아 생일축하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민은 집이에요."

가족
인터뷰 중

"돌봄 부담이 줄었어요.
단순히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해 주는 곳이에요.
부모로서 마음이 놓이고,
저도 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성민주간보호센터는 우리 가족에게
쉼터이자 동반자예요.
20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민은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으로 한 발 내딛을 수 있게 해 준 감사한 기관이에요. 2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센터를 8년 동안 이용한 한 이용자는 최근 디자이너로서의 근로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센터에서 보낸 시간은 이용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는 든든한 발판이 되었다. 자녀의 자립과 함께 보호자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보호자는 "처음에는 내가 온전히 보호자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느꼈는데, 자녀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전하였다.

보호자는 "센터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도 언젠가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는데,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회 속에서 자립을 경험하는 일은 감사한 일이며, 제 오랜 바람을 이루게 해준 곳이 성민이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평범한 일상'을 이어 갈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내일



20년의 세월 동안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자리하였다. 센터는 단순한 보호의 역할을 넘어, 이용자가 아침에 와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였다. 식사와 여가, 일상생활훈련,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하루를 계획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제 성민은 그동안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장애인이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넓히며, 누구에게나 '평범한 하루'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20년의 발걸음은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일상을 이어갈 것이다.

예술로 하나 되는 우리 서울시 지정 비영리 전문예술단체 「우리행성문화예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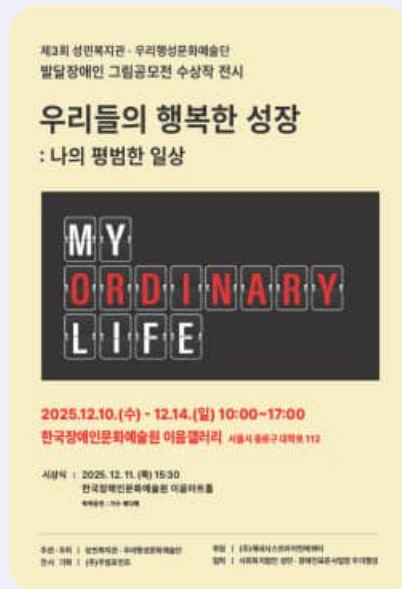
예술로 이어지는 꿈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장애인의 평생과정설계 8개 영역 중 하나인 직업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실천과 대안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015년 9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고 우리행성을 설립하였다. 우리행성은 ‘우리들의 행복한 성장’의 줄임말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아름다운 성장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전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전국 최초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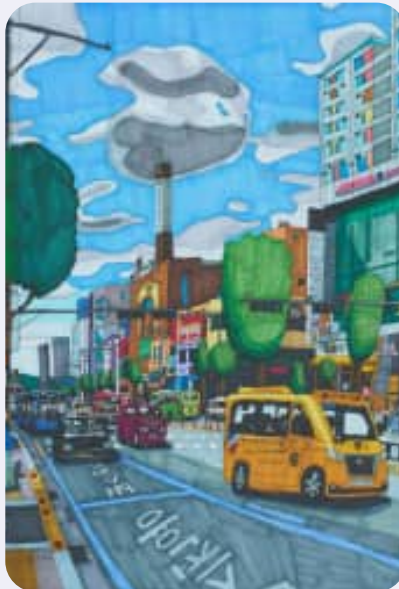
장애인표준사업장 우리행성은 2016년 카페와 제과제빵실을 시작으로 16명의 발달장애인을 바리스타, 제빵사를 고용하여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즐겨워하는 활동을 다양한 직업으로 연계하여 미술작가, 디자이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다.

우리행성은 미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을 발굴하여 자립과 취업연계 기회를 넓혀 가고자 2023년부터 성민복지관과 함께 <발달장애인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해마다 참여 규모와 작품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3년 323명, 2024년 410명, 2025년 497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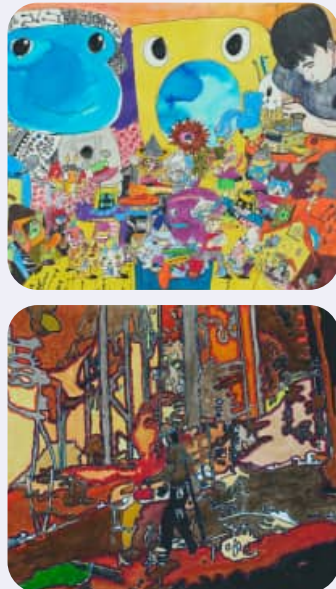
또한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성민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 등과 연계하며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 포스터



대상 작



최우수상 작

예술로 하나 되는 우리, 우리행성문화예술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우리행성은 서울시 지정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인 ‘우리행성문화예술단’을 창단하고 전국의 90명 발달장애인 회원들이 예술인으로서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 우리행성문화예술단은 장애예술인의 전문적인 성장과 예술창작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예술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발굴과 활동 영역 확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행성과 성민복지관에 함께 매년 개최하는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과 수상작 전시 기획을 통해 실력 있는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연혁

- | | | |
|-------|-----|--|
| 2024년 | 7월 | 우리행성문화예술단 단체 설립 |
| | 12월 | 제2회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수상작 전시 <2024 우리들의 행복한 성장> 협력 |
| | 12월 | 우리행성 미술단 전시 <FROM OUR PLANET> 협력 |
| | 12월 | 우리행성문화예술단 서울특별시 전문예술단체 지정 |
| 2025년 | 3월 |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축제 ART FAIR 초청전시(예술의전당) |
| | 4월 |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교통공사 전시 |
| | 7월 | 제3회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공동 주최 |
| | 12월 | 제3회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수상작 전시 <2025 우리들의 행복한 성장> 주최 |

장애 예술, 세상과 함께하다: 2025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축제 아트페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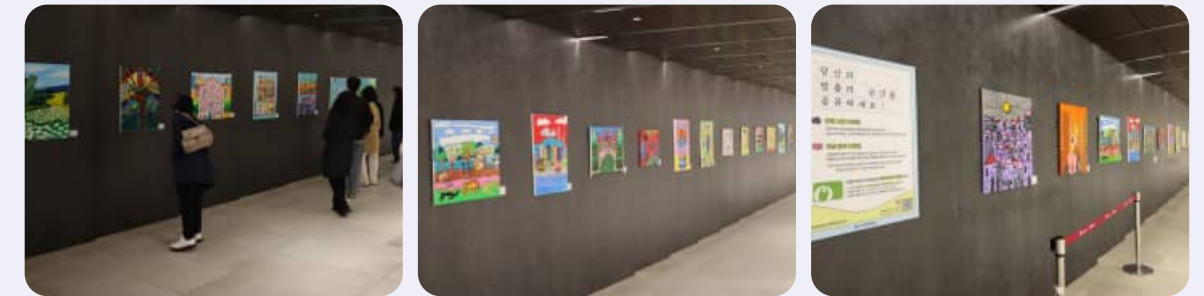
지난 3월 9일부터 18일, 우리행성문화예술단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축제 아트페어’에 참여하였다. 이번 아트페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축제 - 사왕통고(巳王通古)’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자의 예술가와 청년 작가, 발달장애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행성문화예술단 소속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전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아트페어 폐막식에서는 관람객 투표와 심사를 통해 우리행성문화예술단이 단체상을, 예술단 소속 4명의 단원이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담아 낸 작품이 관람객과 전문가 모두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결과였다.



전시 공간을 너머, 일상으로: 쌍문역 '멈춤의 순간展'

4월 16일부터 5월 9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행성문화예술단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여 성민복지관, 서울교통공사 상계영업소와 함께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멈춤의 순간展'을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는 지하철역이라는 일상 속 공간에서 열려 시민들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발달장애 예술을 마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행성문화예술단은 발달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일상의 공간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창작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 예술이 특정한 무대를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예술을 매개로 한 포용과 공감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인 성민 「2025년 직원역량강화 교육」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직원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교육과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전 직원 교육: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글쓰기

8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이 열렸다. 강의를 맡은 류호선 작가는 동화책 저술과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직원이 직접 글을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다양한 글쓰기 유형을 점검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평소 글쓰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실제로 써보고 피드백을 받으니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다.



관리자 교육: 사회복지 현장을 위한 전문 지식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3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8월 11일, 전직원 글쓰기 교육에 이어 관리자 교육의 첫 시간이 진행되었다. 정선영 교수(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경계선지능장애 이해와 사례'를 주제로 강의하며, 실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연구 사례를 통해 중간관리자들이 갖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주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영역인 만큼, 중간관리자뿐 아니라 교육을 희망한 여러 직원도 함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9월 8일에는 관리자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손문미 박사(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심리상담대학원)가 '가족상담의 실제' 강의를 맡아, 워크시트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실제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마지막 교육에서는 김지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상속·유언·신탁 법률교육'을 주제로 현장에서 유용한 법률 지식을 전달하였다. 이번 강의는 법무법인 광장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에도 법률 자문과 상담을 통해 성민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직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은 물론 상담과 법률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을 새롭게 익히는 시간이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앞으로도 직원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선영 교수

손문미 박사

김지훈 변호사

평생과정설계 저변 확대를 위한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 창립」

최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돕는 미래설계를 예방적 접근의 중요한 과제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사람중심계획, 평생계획, 평생과정설계 등 다양한 형태로 미래설계가 실천되고 있으며, 각 모델의 특성에 따라 학문적·실천적 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되고 있다.

학기 발기 총회 및 이사회

지난 5월, 성민사회복지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사회복지법인 성민, 학계 교수,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평생과정설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미래설계복지실천가 양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이하 학회)를 창립하였다. 초대 학회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을 역임한 김정희 박사가 맡았다.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

7월 17일, 학회는 첫 행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직업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 직업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김정희 학회장(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 발제에서 강병노 초빙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장애예술인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이효성 지사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은 '장애 직업 예술인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장진아 대표(하트하트아트앤컬처)는 '장애 직업예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언을 이어갔다.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는 기업 차원의 장애예술인 고용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예술인 고용의 다각화를 강조하였다.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는 장애예술인의 권리와 가능성을 사회적·문화적으로 재정립해야 함을, 김용탁 선임연구위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논의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장애인표준사업장 우리행성을 통해 취업한 고성열 단원(LS일렉트릭 장애미술단 그린캔버스)이 장애예술인으로서 일하며 살아가는 일상과 창작의 경험을 공유하여 정책토론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오는 12월 12일, 연구소와 학회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미래설계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처럼 연구소와 학회는 미래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현장과 학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활동북 및 매뉴얼 「우리들의 행복성장교실」 개정

성민사회복지연구소와 성민복지관은 2017년 발행한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활동북과 매뉴얼을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개정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강점, 자기결정, 권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8개 영역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활동북은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재이며, 매뉴얼은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교사, 치료사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 활동 안내서이다.

특히 이번 활동북 개정에는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학생들이 모델로 참여하여, 그림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관계를 사진으로 담아내 활동북에 생동감을 더하였다. 또한 매뉴얼에는 교육 과정에서 사용된 실제 설명 예시를 수록해 아카데미 진행자가 활동북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민사회복지연구소와 성민복지관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 회의



사진 촬영



발달장애인 자문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활동북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매뉴얼



어르신의 안전한 발걸음을 돕는 「병원 이동 지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병원 진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겪는 교통 이용의 불편과 안전 문제는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특히 보행이 힘들어 워커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 버스·지하철 이용은 위험이 크고 택시 승·하차 또한 쉽지 않아 진료 전부터 걱정이 앞서는 실정이다.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이동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어르신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일상 속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는 안전한 승·하차 보조와 세심한 돌봄이 제공된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A씨는 “혼자가 아니어서 든든하다”고 만족감을 전했으며, 가족 또한 “멀리 있어도 안심할 수 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병원에 갈 때 혼자가 아니어서 든든해요.”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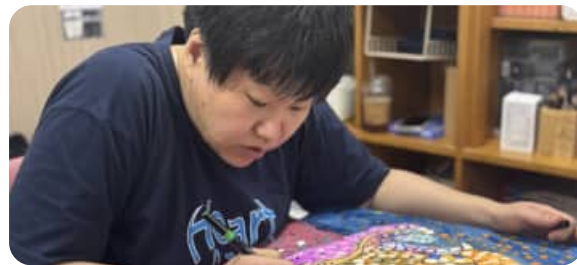


2025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및 확산사업 「K-컬처헤리티지디자이너」

발달장애인의 창의성, K-컬처로

성민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진하는 ‘2025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 및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K-컬처헤리티지디자이너(K-Culture Heritage Designer)」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전통문화와 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고, 굿즈 제작과 전시로 이어가며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예술로 피어나는 가능성



디자인교육



직무역량교육



자립역량활동



자치활동

참여자자는 점과 선, 다양한 패턴을 활용해 전통문양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표현하였다. 단순한 모사가 아닌 창의성과 개성을 담아 작품을 완성하였고, 이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굿즈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문화 계승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회를 넓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교육 과정은 발달장애 미술디자인 전문훈련과정 매뉴얼과 시각예술작가 양성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기초 디자인 교육에서는 색채 원리를 배우고 순수미술로 표현의 폭을 넓혔으며,

전통 디자인 교육에서는 민화와 전통 문양을 바탕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익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창작 활동을 경험하였다. 직무역량 교육에서는 대인관계 예절, 자기소개서 작성, 문제 상황 대처 방법 등 실제 직장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었고, 평생과정설계 워크북을 활용하여 ‘내가 살고 싶은 미래’를 탐색하였다. 더불어 미술관 관람, 야외 드로잉, 일자리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경험을 넓혔다.

전통의 색으로 열어나가는 새로운 길

이번 과정에는 전통예술전승원 소속 전문 작가가 함께하였다. 전통예술전승원은 민화, 문양, 공예 등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보급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기법 전달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전하였다. 참여자들은 전통 색의 이해와 활용, 종이·목재 재질에 따른 드로잉 기법과 도구 사용 등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며 창작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갔다. 일부는 교육에서 얻은 성취감을 바탕으로 시각예술 작가로 조기 취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전통과 예술, 직업으로 꽃피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자가 헤리티지 관련 디자인 분야에 취업하여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이어 가는 성과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참여자와 취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모니터링과 사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돕고자 한다. 특히 10월에는 전시회와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참여자가 예술가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기업과 연계된 직무 활동을 확장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발달장애인이 전통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고 있다.

「K-컬처헤리티지디자이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가능성을 넓히고 전통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하며, 예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전이다. 성민복지관은 전문 교육과 직무 경험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가능성을 확장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K-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여정은 앞으로도 이어지며, 발달장애인의 꿈과 가능성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성민복지관

성민복지관 제1회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과정 「함께하는 믿음직한 동행」

신뢰관계인은 발달장애인이 경찰, 판사, 의사 등과 마주할 때 곁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돕는 시민 조력자이다. 낯선 상황에서 불안을 덜어주고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라 할 수 있다. 성민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넓히기 위해 신뢰관계인 양성과정을 마련하였다.

5월 28일, 성민복지관에서 제1회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이 시작되었다. 지역 주민 15명이 참여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고민하였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토론과 역할극, 사례 나눔을 통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법원이나 경찰서, 병원 등에서 발달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어떤 순간에 어떻게 곁을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하였다. 성년후견제도, 권리옹호, 인권보호, 법적 절차 지원 방법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신뢰관계인으로서의 기초를 다졌다.

교육을 마친 후 열린 위촉식에서 신뢰관계인은 발달장애인의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전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졌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신뢰관계인과 함께 활동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기대가 이어지며 서로의 마음이 모였다. 교육을 통해 준비된 조력자의 다짐과 당사자의 바람이 어우러지면서 행사장은 따뜻한 울림으로 채워졌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교육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싶습니다.”

위촉 이후 이어진 첫 만남 자리에서는 신뢰관계인과 발달장애인이 자기소개와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웃음이 오갔고, 서로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하며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 웃고 듣는 그 시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자라났다.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가며 산책, 영화 관람, 카페 방문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병원이나 관공서 동행, 지역 행사 참여 등으로 활동을 확장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뢰관계인은 단순히 개인을 돕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낯선 절차와 어려운 언어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더 따뜻한 곳으로 변한다. 발달장애인을 향한 관심과 연대가 곧 지역의 힘이 되는 것이다. 성민복지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만남을 통해 신뢰관계인의 역량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신뢰관계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권리를 지키고 삶의 길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지역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꿈을 향한 첫걸음 「평생과정설계 성인 발달장애인 꿈 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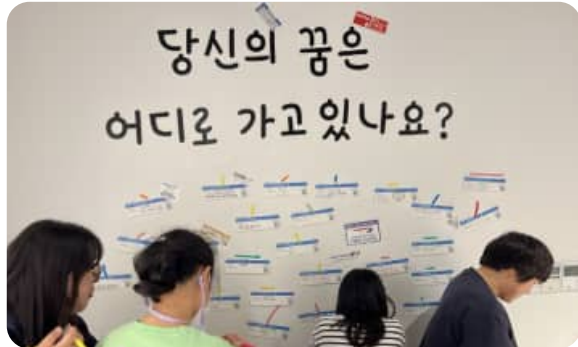
평생과정설계 발달장애인 아카데미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에는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꿈을 발표하며 주변의 응원과 지지를 통해 미래설계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꿈 선포식’을 진행한다. 2025년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11명이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우리들의 행복성장교실’을 수료하여 함께 꿈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지금, 청춘은 여행 중

6월 26일, 상계예술마당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평생과정설계 발달장애인 아카데미 ‘우리들의 행복성장교실’ 참여자 7명의 발달장애인의 꿈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직접 자신의 꿈을 주제로 꿈 부스를 준비하여 미래설계서를 전시하고 ‘나의 꿈과 희망’을 평생과정설계 8개 영역에 맞춰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가족, 지인,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여 참여자들의 꿈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응원하였다. 전시와 발표를 통해 참여자들의 ‘꿈과 미래’를 표현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성민교양대학 1학년의 행복한 꿈 선포식’

7월 31일, 성민복지관 1층 로비에서 성민교양대학 1학년 꿈 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성민교양대학 입학 후 평생과정설계 8개 영역을 배우며 발견한 나의 꿈을 선언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문 낭독보다 참여자들이 직접 초대장, 순서지, 엽서, 다과, 체험 부스 등을 준비하며 주도적으로 운영되었다. 브런치 카페 요리사, 중식 요리사, 미술작가, 놀이공원 직원 등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주제로 부스를 꾸몄고, 가족, 지역주민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체험 활동을 즐겼다.

본 행사에서는 차현미 관장(성민복지관)의 격려인사를 시작으로 참여자들의 꿈 선언문 발표가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꿈을 선택한 이유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며 열정적인 준비와 연습의 흔적이 묻어나는 발표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성민대학 선배가 후배에게 따뜻한 축사를 전하였고, 보호자도 참여자의 성장을 축하하며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성민교양대학 1학년의 꿈 선포식은 참여자가 주체적인 미래설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자립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 성민교양대학은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갈 예정이다.

꿈꾸는 아이들의 소망 가득한 날갯짓 「꿈꾸는아이들 꿈디자이너(초등그룹)」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월드비전과 협약하여 지역 내 아동이 진로 역량을 키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꿈에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꿈꾸는아이들 꿈디자이너」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7년 연속 운영된 '고등그룹'에서 나아가 '초등그룹'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여 꿈을 향해 소망 가득한 날갯짓을 시작하였다. 2025년, 아이들의 반짝이는 꿈을 향한 첫걸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만남! '부스팅 캠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참여 아동 및 보호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부스팅 캠프'가 진행되었다. '부스팅 캠프'는 추후 8년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되어 참여 아동과 보호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긍정적인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호자들은 '마.성.모(마들에 사는 성장하는 히어로들의 모임)'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운영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아동들의 꿈을 지지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다짐과 힘찬 동행을 약속하였다.



이튿날, 참여 아동들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We Play'의 공연을 관람하고 멀리 날리기 대회를 준비하였다. 타기관 참여 아동 포함 128명 중 복지관 아동 2명이 각각 1, 2등을 차지하여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



배움의 즐거움, '히어로 스쿨'

4월 한 달간 아동들의 진로 선택 및 직업 탐색을 위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히어로 스쿨'이 진행되었다. 아동들은 자신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 언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고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하여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실천하며 성장하는, '히어로 미션'

6월 28일, 아동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히어로 미션' 활동의 일환으로 롤러장 체험이 진행되었다. 아동들은 롤러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롤러 스케이트를 타며 트랙을 완주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움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는 「소중한 마음들 이야기」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매년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든든한 가족이자 이웃으로서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마음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경의 마음을 담은,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복지관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주민 323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정성을 담아 준비한 특식과 카네이션을 주민들에게 나누고 포토존 부스를 통해 따뜻한 추억을 남기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주민들에게 전해진 카네이션은 광운민들레홀씨봉사단(단장 이민정)과 복지관 주민모임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 직접 제작한 수공예 카네이션으로 그 의미를 더하였다. 순복음노원교회 봉사단 '조은사람들'은 복지관에 방문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하나되어 내 이웃을 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정인 관장(마들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도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기쁘다.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이어 가고 싶다”라는 소감을 전하였다.



“직접 만든 카네이션에 담긴 특별한 마음을 선물받아 행복해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중복맞이 특식나눔 '사랑의 합동봉사'

7월 30일, 복지관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상록자원봉사단은 중복맞이 특식나눔 '사랑의 합동봉사'를 진행하였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상록자원봉사단의 따뜻한 손길(지역주민 대상 손편지 작성, 특식 나눔, 경로식당 지원 등)로 더운 여름을 이겨 낼 수 있는 선물 같은 순간이 되었다.



풍성한 마음들이 모인 '추석 행사'

10월 1일, 복지관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주민 323명을 대상으로 2025년 추석 행사를 진행하였다. 순복음노원교회 봉사단 '조은사람들', 광운민들레홀씨봉사단과 경로당 회원, 복지관 직원들이 함께 지역주민의 행복한 명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모듬전과 특식을 전하며 따뜻한 한가위의 분위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웃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전도 부쳐 나누어 먹을 수 있어 행복해요.”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마련을 위한 「행복1단지 마들로」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에는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습리더단의 건강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건강 지지 향상 및 지역나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복1단지 마들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 내딛는 첫걸음, 'OT'

4월 17일, 학습리더단 및 독거 어르신 20명과 함께 'OT'를 진행하였다. 학습리더단은 'OT'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의견 나눔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건강 욕구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여자 간 건강에 대한 매칭형 지지 구조를 마련하고 건강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배움의 즐거움, '역량강화교육'

5월부터 6월까지 학습리더단 10명을 대상으로 건강나눔 교육활동 관련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총 3회기에 걸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다. OT에서 확인한 학습리더단의 교육 욕구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주제(건강 요리, 공예, 체조)를 선정하였으며,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건강과 관련된 전문 지식 및 실천 경험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 '건강나눔 교육활동'

「행복1단지 마들로」 학습리더단은 매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마의 '건강나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OT에서 확인한 독거 어르신의 건강 욕구를 기반으로 학습리더단은 자조적 준비 단계를 거쳐 건강 이론 교육 및 실습형 활동을 실천하였다. 독거 어르신의 생활 속 건강 실천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및 나눔을 활성화하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교육한 내용들로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지셔서 행복해요."

복지관은 앞으로도 학습리더단과 함께 건강 나눔을 실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뜻한 만남과 성장이 있는 「단과반」 이야기

「단과반」 개소

4월 4일,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중랑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단과반」을 개소하였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단과반」은 일상생활 기술, 자기표현과 사회적 소통, 공동체 참여 등 자립생활 실습의 장이 되고 있다.

중랑센터는 단과반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센터 이용 연한(5년) 만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용자와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DIY, 베이킹, 방송댄스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 지역사회 안에서 평생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단과반」 이야기

「단과반」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리와 정리 정돈 등 자립생활 기술을 익히는 실습 공간, 공예작품을 만들어 전시할 수 있는 창작 공간, 춤과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표현 공간, 자조 모임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단과반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배움터로 운영되고 있다.



「단과반」 프로그램은 자립과 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실용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텝업’의 댄스 활동으로 신체 유연성과 자신감을 키우고, ‘손끝 공예’에서는 창작을 통해 집중력과 표현력을 넓혀 가고 있다. ‘5분 디저트’에서는 요리 활동을 통해 자립 능력과 배려심을 기르고 ‘슬기로운 자립생활’에서는 실생활 중심의 소통과 자기관리 기술을 익히고 있다.

"직장 생활 후 무료함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활동을 통해 직장 생활에 활력소가 마련된 것 같아요."
-가족소감-

"단과반 오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용자 소감-



앞으로도 중랑센터는 「단과반」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삶의 기술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보다 풍요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함께 써 내려가는 가족의 이야기 「Memories Of the Mother」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중랑센터)는 8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8회기에 걸쳐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현재의 모습을 기억하며 자녀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기 위한 「Memories Of the Mother(이하 M.O.M)」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M.O.M」은 성인기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녀의 강점과 잠재력 등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추억쌓기

‘여행을 떠나요’ 노래를 부르며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했던 여행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나누는 등 부모의 기억 속 자녀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으로 「M.O.M」이 시작되었다. 편안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따뜻한 우리집을 떠올리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행복한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점찾기

‘우리집은 동지야’, ‘가족 마음 안아주기’ 등 그림책을 함께 읽고 가족 구성원의 강점을 상징하는 식물과 장식을 이용하여 ‘가족 정원’을 만들었다. 그림책에서 말하는 정원의 의미와 가족 구성원의 다름을 인정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엄마가 생각하는 자녀의 강점, 자녀가 생각하는 엄마의 강점을 ‘희망사항’ 노래에 맞춰 개사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재발견하는 등 서로에게 기대어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 그려보기

「M.O.M」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자녀의 강점을 기반으로 내 자녀를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자녀의 강점과 꿈,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자녀와 함께 그려나가고 싶은 가족의 미래를 이야기하였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족의 여정을 기약하며 「M.O.M」의 의미를 더욱 빛낼 수 있었다.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해보는 프로그램이 초반에는 어색했지만, 자녀의 또 다른 성장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회기가 지날수록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등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가족 간 유대감이 쌓여 갔다.

중랑센터는 「M.O.M」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이용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우리 동네의 환경을 지켜요! 「내가 그린(Green) 미래」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동대문센터)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꾸준히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2021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플로깅 캠페인 ‘초록 발걸음’을 시작으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으며 2025년부터는 「내가 그린(Green) 미래」 활동으로 지구를 지키는 일상 속 작은 실천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일상 속 작은 실천

이용자는 월별 주제에 따라 다양한 환경 오염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연습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된 이용자는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쓰레기의 변신은 무죄 ‘업사이클링’(플라스틱 방앗간, 체인지어스)

「내가 그린(Green) 미래」에서 쓸모없는 ‘쓰레기’는 가치 있는 ‘작품’이 되었다. 폐현수막, 과자 비닐 등의 폐자원은 이용자의 손을 거쳐 멋진 가방, 화분으로 재탄생하였다. 또한, 서울환경연합의 ‘찾아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배움터’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나만의 이름표를 만들어 보거나 우유팩으로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는 등 쓰레기가 예술 작품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그린 미래

10월 31일, 당사자대회 「우리가 그린(Green) 미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업사이클링 작품 및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 부스와 환경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체험 부스로 구성되어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용자가 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방문객을 맞이하며, 발달장애인이 환경 보호 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가능성을 알릴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와, 쓰레기로 어떻게 작품을 만들 생각을 했지?”, “앞으로 환경 보호에 관심을 더 가져야겠어요”라며 특별한 소감을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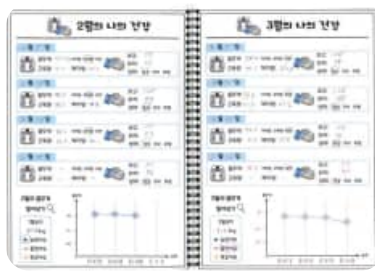
「내가 그린(Green)미래」는 환경 보호 실천 활동의 의미를 넘어 이용자가 사회의 문제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참여의 계기이자 지역주민과 서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용자는 “양치할 때 물을 잠가야 해요!” 등 일상 속 환경실천가로 거듭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도 동대문센터는 발달장애인이 꿈꾸는 행복한 초록빛 미래를 지역사회와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동대문센터)는 신체적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모의 건강검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건강한 하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익숙한 기록, 확장된 실천

동대문센터는 이용자와 함께 2025년 개별 건강 목표를 수립하고 맞춤형 건강 실천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용자는 주 1회 신체적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성분과 혈압 등을 측정하고 건강 노트에 스스로 기록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다. 건강노트는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과 소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정보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건강을 몸으로 느끼는 하루



발달장애인은 감각적 특성, 의료진과의 소통, 낯선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건강검진 수검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동대문센터는 이용자가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검진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월 모의 '건강검진day'를 진행하였다.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진 절차를 시각화하고 이용자 개별 특성에 맞추어 검진 과정을 지원하였으며,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봉사동아리 '깜냥' 학생들의 따뜻한 동행으로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 적신호를 발견하며 가정과의 연계로 실제적인 질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배움과 실천으로 채우는 건강

이용자는 국립재활원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건강검진과 보건소 구강검진에 참여하면서 배움을 실천하였다. 검진을 기다리는 이용자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하였으나 자신의 차례가 되자 망설임 없이 검사실로 들어가 자원자의 안내에 따라 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건강검진 안 무서워요.
이제 검사 잘 받을 수 있어요."
-이용자 소감-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무서워서 검진을 받는 게
어려웠는데, 오늘은 검진을 의젓하게
잘 받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네요."
-가족 소감-

성인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튼튼한 신체에 더하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돌보고 타인을 배려하며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동대문센터는 이용자와 함께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건강 또한 증진하고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고자 한다.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우리의 의미, 영화로 있다」

5월 8일,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노원 롯데시네마에서 장애인식개선 사업 「우리의 의미, 영화로 있다」 행사를 개최하였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 가족의 삶을 다룬 영화 '그녀에게' 상영 및 작품의 원작자인 류승연 작가와의 만남으로 꾸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노원구청 공무원과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지역 주민, 장애인가족 등 약 100명이 함께하여 행사 의미를 더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기념 촬영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였다.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포용적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장애인 부모의 삶을 들여다 볼 기회가 적었는데,
직접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
공감이 되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 '그녀에게'가 상영되었으며, 신종우 부구청장(노원구청)과 박신영 센터장(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 참여자에게 인사를 전하였다. 상영된 영화 '그녀에게'는 장애인 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희로애락을 사실적으로 담아내어 영화를 관람한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한 참여자는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과 사회적 현실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영화 '그녀에게'의 원작자인 류승연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작가는 영화 속 실제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장애인가족의 일상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관객은 작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영화의 배경과 제작 의도는 물론, 장애인 가족이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장애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장애인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민뉴스 1

사회복지법인 성민



C2C미디어교회,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성년후견사업 후원금 전달」

5월 20일,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C2C미디어교회로부터 성년후견사업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법인의 후견 사업 취지에 공감한 C2C미디어교회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교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후원금은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성민사회복지연구소 「평생과정설계 업무협약」

성민사회복지연구소와 성민복지관은 4월 반포종합사회복지관, 7월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8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평생과정설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과정설계 사업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9월 20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돌봄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겪는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앞으로도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어 가고자 한다.



우리행성 「미지의 정원」 전시회 개최

5월 20일부터 23일, 우리행성은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일환으로 노원구 소재 상계예술마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발달장애 작가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 낸 자연의 모습을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마치 작은 자연사 박물관을 거니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관람객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작가들의 삶과 마음을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성민뉴스 2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의 미래설계 역량강화 「평생과정설계 보호자 아카데미」

5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평생과정설계 보호자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평생과정설계 총론을 비롯하여 교육, 직업, 주거 등 8개 영역을 중심으로 장애자녀의 미래 준비를 다루며 보호자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는 주말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아버지와 직장인 어머니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며 장애인가족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를 위한 주말 힐링 타임 「목공예 원데이클래스」

9월 6일, 장애인가족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한 일일 「목공예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였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참여자는 나무를 활용하여 가족을 위한 다용도 수납함을 만들었으며, 다른 참여자와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공예 활동은 단순한 체험의 시간을 넘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추억 가득한 가을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가족나들이」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가족나들이」를 진행하였다. 총 10가족, 40명이 함께한 이번 나들이는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단체 및 자차로 이동한 가족들은 남이섬에 입도하여 닭갈비 식사 및 가족별 자유 시간을 보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하여 가족 오락관, 바비큐 파티,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가족나들이 참여자는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양육코칭 오픈강좌 「자녀의 미래 준비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10월 24일, 「자녀의 미래 준비를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주제로 문채영 대리(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를 초빙하여 오픈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좌는 자녀의 의사결정 지원과 재산·신상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인 성년후견제도의 개념과 절차,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자녀의 미래를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알게 됐다”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성민뉴스 3

성민복지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여름캠프 「청년과 바다」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 이용자 3명과 '대부도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참여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을 비롯해 수영, 파자마파티, 노래방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캠프는 이용자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을 제공했으며,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이어 갈 예정이다.



성민농구클럽 SMBT 「안산시장배 장애인 농구대회 출전」

7월 12일, 성민농구클럽 'SMBT' 선수단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제4회 안산시장배 장애인농구대회에 출전하였다.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높였으며, 끈끈한 팀워크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경험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팀워크 강화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발휘해 나갈 예정이다.



성민복지관과 함께하는 「선~한 바자회」

7월 20일, 순복음노원교회 앞마당과 예수사랑센터에서 「선~한 바자회」가 열렸다. 이번 바자회는 장애인복지 기금 마련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먹거리와 의류·잡화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기부의 가치를 나누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ESG실천사업 환경캠페인 「장바구니 한 장의 기적」

7월 20일, 순복음노원교회 앞 바자회 장터에서 'ESG실천사업 환경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2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환경 OX 퀴즈로 생활 속 환경문제를 돌아보고, 장바구니를 제공받으며 실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성민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구를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성민뉴스 4

성민복지관



성민역도클럽 뽀빠이 「전국장애인역도선수권 대회 출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성민역도클럽 '뽀빠이' 선수 7명이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제24회 전국장애인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다. 선수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은메달 3개와 동메달 9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민역도클럽은 오는 10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목표로 한층 더 체계적인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 가족 지원 컨퍼런스」 개최

7월 24일, 서울시 거점장애인복지관(동북권역 성민복지관)은 '중고령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주제로 「장애인 가족 지원 실무자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컨퍼런스에는 약 90명이 참석해 현장의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거점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립가구에 온기 전달 「따뜻한 동행」온 가족 반찬 나눔」

성민복지관은 사회적 고립 가구를 돕기 위해 「따뜻한 동행」 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 평생과정설계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반찬나눔에 참여해 직접 만든 반찬을 지원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직원·자원봉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당사자가 함께한 실천으로 의미를 더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속 따뜻한 변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성민복지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부스운영」

성민복지관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부스에서는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그림을 활용한 스티커로 키링 꾸미기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완성하였다. 성민복지관은 이번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가능성을 알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성민뉴스 5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거동불편 어르신 문화지원사업 '한걸음가치' '지역 알아보기'

4월 10일, 거동불편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사업 '한걸음가치'의 '지역 알아보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은 이동의 편의성과 선호도를 논의하여 무장애 코스를 선정한 후 화랑대 철도공원을 탐방하였다. 이후 지역사회 내 무장애 코스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사회적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다.



노원구 장애인친화미용실 장애인의 날 맞이 '이벤트데이'

4월 14일부터 26일, 노원구 장애인친화미용실 상계점·공릉점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미용복지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봄이 왔나 봄' '이벤트데이'를 진행하였다. 미용실을 방문한 이용자들은 '희망메시지 플래카드 촬영', '응원 메시지 남기기'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되었다.



2025년 아동문화사업 가정의 달 맞이 '아동문화행사'

5월 7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다채로운 체험부스(영화, 포토존, 게임, DIY 케이크 만들기&편지 쓰기)를 통해 아동들은 행사를 즐기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025년 함께 나누는 추억들, '어르신 나들이'

5월 13일,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당 어르신과 함께 용인농촌테마파크로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다. 어르신은 맛있는 점심식사 후 테마파크를 관람하며 명소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는 등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었다.

성민뉴스 6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여가문화사업 '키오스크교실' '체험학습'

6월 16일, 어르신여가문화사업 '키오스크교실' 참여 어르신과 함께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AI 게임기, 교육용 키오스크, 무인사진관, 스마트미러, 로봇무인카페 등 첨단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이용함으로써 일상 속 무인 시스템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마을 친환경 프로젝트 '마당발전소' '외부 체험교육'

6월 27일, 우리마을 친환경 프로젝트 '마당발전소' 참여 어르신과 함께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외부 체험교육'을 진행하였다. 어르신은 건축해설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의 에너지 소비 과정을 이해하고, 전기버스와 맹꽁이 차를 타고 난지도의 역사를 탐험하였다. 또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버려진 자원이 재탄생하는 과정에 대해 배우며 에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교육이 되었다.



지역밀착형복지관 '마.주.보.다.' '고립가구 발굴 및 캠페인'

7월 24일, 복지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원역(7호선) 내에서 주민 참여형 지역통합사업 '마.주.보.다.'의 일환으로 '고립가구 발굴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복지관이 아닌 또 하나의 거점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과 밀착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생프로젝트 '원헬스사업' '캠페인'

7월 24일, 인간과 동물, 환경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프로젝트인 '원헬스사업'의 '캠페인'이 노원역(7호선) 내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반려동물의 올바른 식이영양'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제간식 레시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원헬스 개념 인식 확산을 도모하는 순간이 되었다.

성민뉴스 7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잠시 멈춤, 함께 걷는 길 「부모 나들이」

5월 13일, 중랑센터 이용자 부모님과 함께 「부모 나들이」를 진행하였다. 성수동 일대에서 식사와 카페 이용, 원데이클래스(모루 인형 만들기)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뜻깊은 하루였으며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함께라서 더 즐거웠던 「중랑구 용마폭포 어울림 체육대회」

6월 27일, 중랑센터는 중랑구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한 「중랑구 용마폭포 어울림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보치아 OX퀴즈, 키오스크 체험, 키팅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뉴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하며 서로 응원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웃음과 성취감이 묻어났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활력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발달장애인이 만드는 푸른 내일 「함께하는 ESG」

7월, 중랑센터는 발달장애인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ESG」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중랑구환경교육센터의 「우리동네 환경학교」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푸른지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를 배우고 천연 바디샴푸 만들기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작은 실천의 중요성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사회성과 자립을 위한 성장 이야기 「모꼬지 활동」

10월 24일, 중랑센터는 「모꼬지 활동」으로 푸르메소셜팜을 방문하여 직무 체험에 참여하였다. 이용자는 방울토마토 수확 체험을 통해 농업을 직접 경험하며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이숲 카페에서는 각자 좋아하는 음료와 빵을 선택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스스로의 동기와 꿈을 발견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성민뉴스 8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성년의 날 행사 「나를 말하다」

5월 19일,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고자 「나를 말하다」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나만의 손도장 만들기, 성년 다짐서 작성하기, 기념사진 촬영으로 구성되었으며 존중과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는 “저도 당당한 성인이 되었어요!”, “앞으로 내가 스스로 할 거예요”라고 말하며 특별한 소감을 전하였다.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당신의 한 페이지, 미래路(로)」

6월부터 9월까지, 동대문구청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2025년 가족지원사업 「당신의 한 페이지, 미래路(로)」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신체 활동을 주제로 한 힐링 활동과 가족 미래설계워크북을 통한 가족미래설계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가족은 숨겨져 있던 가족의 강점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전한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중재 실천 교육」

8월 12일, 센터의 안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 중재 실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김오송 대표(다인 HADA 행동연구소)가 진행하였으며 긍정적 행동지원과 위기 개입을 주제로 한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교육에서 익힌 지원 방법을 통해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감을 전하였다.



감각과 종이 오브제를 활용한 프로그램 「감각산책」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다도 스튜디오 예술 단체 전문가가 진행하는 「감각산책」에 참여하였다. 「감각산책」은 이용자가 종이로 자신의 모습을 감각적이며 예술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에 반응하며 새로운 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후원

평생복지 평생친구 하나님의 성민

소외된 이웃의 평생친구가 되어

항상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하는 사람들(후원 안내)

우리은행 1005-601-006713
국민은행 356237-04-002376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성민)



나누는 사람들(자원봉사 안내)

사회복지법인 성민
Tel. 02)3391-4240

후원자·자원봉사자 소개

기부천사 나눔천사를 소개합니다.(2025년 4월~2025년 10월)

사회복지법인 성민

기부천사 | 후원자

가○현	강○석	강○일	강○숙	곽○은	구○희	권○영	권○경	김○섬	김○호	김○정
김○연	김 ○	김○담	김○라	김○형	김○숙	김○준	김○지	김○숙	김○영	김○진
김○혜	김○남	김○인	김○현	김○식	김○진	김○례	나○옥	남○란	남○준	문○순
문○자	문○영	민○식	박○희	박○재	박○용	박○영	박○순	박○순	박○희	박○두
박○영	박○승	박○숙	박○영	백○순	서○천	서○인	손○희	신○섭	신○운	신○영
신○주	심○영	심○은	안○자	양○숙	양○승	양○숙	엄○숙	여○구	오○현	유○진
유○경	유○희	유○훈	유○필	이○자	이○자	이○선	이○연	이○정	이○용A	이○용B
이○호A	이○호B	이○호	이○환	이○정	이○혜	이○은	이○홍	이○아	이○영	이○아
이○순	이○선	이○심	이○섭	이○성	임○재	장○지	장○한	장○진	정○근	정○훈
정○수	정○식	정○주	정○남	조○미	조○건	차○미	채○곤	채○병	최○석	최○순
최○은	최○범	최○순	하○양	한○숙	허○화					

기부천사 | 후원 단체

꿈○교회	노○기독교연합	늘○른친과의원	민○순복음교회
삼○순복음교회	순○음노원교회 권사회	세○전기(주)	(주)엠○에스코퍼레이션
창○제일교회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나눔천사 | 자원봉사자

고민정 백금숙 황동기 류화정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나눔천사 | 자원봉사자

강선영	강지혜	권서연	김성민	김연서	김은부	김재희	김종윤	김지수	김지은	김채은
김현진	남미림	노혜림	마리아	박도연	박수빈	박정윤	박준형	박찬윤	박혜빈	박혜원
배유진	서선숙	송화영	안건우	안정후	엄태희	여연수	오다은	유푸르메	윤도웅	윤형숙
이나영	이노현	이다예	이문주	이상석	이슬비	이승주	이지원	이현승	이호준	장요한
전진희	정초인	조서윤	조연준	주수아	차정우	최예인	최정은	홍승우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나눔천사 | 자원봉사자

구효서 박세희 이다은 이영범 조수아 한지윤 허동준 홍종우

후원자·자원봉사자 소개

성민복지관

나눔천사 | 자원봉사자

권나영	권환호	김건우	김도연	김세정	김연정	김은복	김재운	김태환	김현미	나순숙	남궁선
박민서	박상욱	백승주	서슬기	서예진	홍재원	성예은	송혜진	신동호	신은서	유 빈	유정윤
유창석	이 건	이경서	이고운	이동준	이서연	이서진	이선미	이소정	이현진	장요한	전균애
전서희	조동희	조상현	조성우	조성준	최진헌	최흥기	한소영	허재훈	황채린		

나눔천사 | 단체

노원구의용소방대

공안순	김관식	김선주	김윤희	김은실	김재운	김진원	남은정	박외순	신승현	안용민	오세홍
이경수	이수빈	이원국	장현주	정주영	조은희	조창래	차연호	최희준	한선규	한정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SNUTO

권민주	김단야	김승일	서상범	오화정	이원준						
-----	-----	-----	-----	-----	-----	--	--	--	--	--	--

서울교통공사 나눔봉사단

김교동	김다희	김명진	박민서	박영욱	윤신애	홍성은					
-----	-----	-----	-----	-----	-----	-----	--	--	--	--	--

우정한그릇

김기범	김희숙	류정현	박태숙	변영욱	서명순	양재원	임재혁	최미선	황진숙		
-----	-----	-----	-----	-----	-----	-----	-----	-----	-----	--	--

행복나누미 서포터즈

김연옥	오광순	이정필	정숙영	한영옥							
-----	-----	-----	-----	-----	--	--	--	--	--	--	--

기부천사 | 후원자

가○현	강○욱	강○민	강○지	강○행	강○호	강○숙	강○숙	곽○은	김○천	김○희	김○나
김○아	김○영	김○정	김○미	김○곤	김○환	김○지	김○영	김○주	김○화	김○홍	김○오
김○원	김○은	김○재	김○경	김○기	김○란	남○란	남○준	남○규	박○순	박○아	박○찬
박○슬	박○혁	박○경	박○혁	박○우	성○수	손○애	신○자	심○정	심○은	안○정	안○호
유○경	유○호	윤○옥	윤○원	윤○애	윤○한	은○수	이○연	이○로	이○진	이○로	이○예
이○주	이○원	이○훈	이○민	이○영	이○주	이○학	이○원	이○학	이○엽	이○주	이○창
이○수	이○인	이○열	이○현	이○규	이○홍	이○주	이○솔	이○주	이○진	임○민	임○영
장○경	장○서	장○정	장○성	전○식	정○총	정○민	조○범	조○희	조○민	조○준	조○정
진○화	차○미	최○영	최○민	최○영	최○성	하○근	한○숙	한○희	한○이	한○연	현○정
홍○일	황○기										

기부천사 | 후원단체

JO획 교O생명 나O미디어 노O교육복지재단 노O구소상공인회6기 뚜O집 부대찌개 밀O복지재단
불O조 사O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 서O교통공사 도봉차량사업소 서O교통공사 상계영업사업소
서O교통공사차량제작처 서O시노원구재가노인복지기관 시O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시O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여O크로커다일성남태평점 이O가마솔육계장 이O스조경
주식회사 정O회관 (주)O울네트워크 주O회사 네트론 주O회사 키미스플랜 (주)O엔앤시스템
(주)O성음향 (주)O네시스프라이빗에쿼티 (주)O온 중O종합사회복지관 지O 안산선부 초O우산
푸O메재단 피O노가 아플 때 필O방 필O자인 한O자유총연맹 서울시노원구지회 한O장애인재단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나눔천사 | 자원봉사자

김형석	임효경	장요한	전순영								
-----	-----	-----	-----	--	--	--	--	--	--	--	--

기부천사 | 후원자

강○희	고○경	김○용	김○희	박○경	박○희	박○우	백○례	서○천	윤○용	이○자	이○숙
이○노	조○만	최○희	한○영								

기부천사 | 후원단체

성O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모회 수O중국유통 파O바게트 상계제일점

성민그룹홈

기부천사 | 후원자

곽○순	구○란	김○자	김○지	김○덕	김○순	박○순	박○경	서○정	이○자	이○원	임○숙
장○영	장○상										

기부천사 | 후원단체

국O연금도봉노원지사 도O구청 사O복지법인성민 성O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 소개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나눔천사 | 자원봉사자

강민지	강태희	강혜린	강희순	고성현	고정숙	권태민	기경환	김규리	김기찬	김나은
김도현	김동건	김동균	김선경	김성국	김성연	김 수	김예진	김용만	김원호	김유진
김은경	김재익	김종성	김종숙	김주완	김진기	김채은	김축복	김하빈	김한민	김혜경
김홍경	남길남	남명우	남상찬	남정배	남철우	노아영	노은채	류정현	류진하	마낙길
모상민	문금순	문서정	문희정	민수진	박다은	박병규	박성원	박소현	박신영	박양하
박장인	박정음	박지혜	박철수	박하준	박현주	박현주	박현진	박혜정	박효리	방준규
변영옥	봉희옥	서가은	성권근	성주현	송선희	송승현	송재열	신선미	신윤재	신주희
신준원	안복임	안서연	안예린	안정복	안정애	오민주	오신비	오지민	오하랑	유성제
유정수	유제이든	유지영	윤도영	이 현	이가원	이경란	이광호	이기덕	이도현	이루다
이명희	이상춘	이소명	이소희	이순원	이승호	이시율	이연지	이영순	이요한	이우창
이윤솔	이은별	이은비	이정옥	이종희	이지선	이지수	이지학	이후인	임성은	임은경
임한나	장민서	전유옥	정백학	정승환	정우성	정유리	조오현	조용금	조효섭	주보상
지희선	진소정	차금숙	최말숙	최상민	최서연	최순양	최은봉	최인식	최재원	최종익
최준석	최한중	최향숙	최현호	최혜순	최흥기	한성민	허 만	홍수빈	황성혜	황재원
황준영	황지원	황혜빈	황혜현	황희순	Michael Chesnut					

나눔천사 | 자원봉사 단체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상록자원봉사단 상계백병원 의료진 봉사단 한국성서대학교 그린나래 봉사단
순복음노원교회 봉사단 ‘조은사람들’ 한미글로벌 임직원봉사단 따뜻한동행 FC새벽녘 사랑해 봉사단
광운대학교 민들레홀씨 봉사단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기부천사 | 후원자

강○명	강○성	강○순	강○성	강○민	강○숙	강○희	강○훈	고○숙	고○영	곽○연
곽○진	구○웅	구○열	권○범	권○화	권○숙	김○태	김○숙	김○규	김○임	김○진
김○희	김○자	김○덕	김○호	김○룸	김○호	김○호	김○라	김○근	김○란	김○재
김○화	김○훈	김○이	김○미	김○선	김○녀	김○배	김○섭	김○인	김○석	김○현
김○자	김○영	김○용	김○나	김○샘	김○준	김○중	김○철	김○원	남○우	노○후
라○식	문○옥	문○원	문○단	문○구	박○규	박○영	박○제	박○한	박○미	박○자
박○준	박○권	박○정	박○두	박○명	박○민	박○출	박○영	박○혁	박○열	박○우
방○용	방○희	배○희	배○진	배○두	서○옥	서○원	석○자	손○혁	송○중	송○일
송○용	송○국	신○라	신○숙	신○영	신○지	신○양	신○철	심○연	안○희	안○현
안○민	양○호	연○옥	염○식	오○진	오○민	오○락	왕○옥	우○현	위○희	유○영
유○자	유○자	유○경	유○준	유○화	윤○걸	윤○호	윤○림	이○영	이○진	이○화
이○희	이○순	이○현	이○호	이○금	이○하	이○정	이○정	이○석	이○범	이○우
이○화	이○정	이○례	이○현	이○호	이○리	이○재	이○주	이○석	이○진	이○표
이○진	이○정	이○샘	이○영	이○영	이○인	이○희	이○영	이○혜	이○윤	이○현
이○정	이○주	이○범	이○섭	임○진	임○연	임○위	임○성	임○환	장○연	장○례
장○영	장○배	전○진	정○호	정○희	정○재	정○라	정○충	조○민	조○영	주○규
지○민	진○선	진○선	최○현	최○미	최○희	최○아	최○봉	최○옥	최○옥	최○정
최○수	표○옥	하○영	한○현	한○선	홍○문	황○연	PORK HANNELYN			

기부천사 | 후원 단체

(주)이씨피로지템 (주)코푸드코리아 (주)리은행 (주)리다츠 (주)빈어패럴 KOS강태원복지재단
가○씨제이 공○2동어린이집 공○원연금공단 서울지부 광○대참사랑회 광○민들레홀씨봉사단
굿○이버스 금○오픈케어 기○오토큐(중계점) 노○교육복지재단 노○구청 다○나
더○른한의원 루○아한복 리○ 만○장성 밀○복지재단 사○복지공동모금회
사○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사○복지법인 성민 상○백병원 서○노원우체국
서○시사회복지관협회 수○노인종합복지관 시○향 신○은행(노원역지점) 아○레이블
연○우리안과 월○비전 유○헤어라인 이○치과의원 카○오갈이가치 현○카드

성민복지관
정기후원 안내

“장애인과 가족의 행복한 꿈을 응원하는 이웃이 많아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랑나눔 실천을 통해 그 꿈을 응원하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를 꿈꾸던 성민씨는
커피 전문점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미술디자이너를 꿈꾸는 성민씨는
다양한 미술 활동에 참여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꿈꾸던 성민씨는
장애인 체전에서 장애인 역도부문
한국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성민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의 행복한 삶과 꿈을 응원하고자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역사회에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이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기후원
매월 정기적으로 CMS 및 계좌이체로 후원
국민은행 356201-04-131877(성민복지관)
우리은행 1005-201-609513(성민복지관)

물품후원
생활용품, 도서,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전달하고, 후원
행사로 판매된 물품의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사용

온라인 후원
네이버해피빈을 통해 복지관 모금함에
콩을 기부하여 후원
(happylog.naver.com/sungmin.do)

후원자 안내사항
후원금 영수증 발급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에
의한 면세 / 복지관 소식지 및 문자 안내
우수 후원자 표창 추천 및 홈페이지 홍보

후원문의 및 신청 지역연계협력팀 Tel. 02)933-0480
성민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32길 30-3 / Tel. 02)931-7970~2 / www.sungminwelfare.or.kr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장애인친화미용실 상계점·공릉점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의 아름다움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대상
· 노원구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누구나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토 : 10:00~19:00
· 점심시간 : 13:00~14:00

휴관일
· 매주 수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신청방법
· 홈페이지(nowonhaircafe.org) 및 전화 예약 가능
· 예약운영으로 예약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용서비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위 요금 50% 적용

서비스	이용료
커트	6,900원
클리닉	22,000원
염색	15,900원
파마	19,000원
열파마	39,000원



장애인친화미용실 상계점 ☎02-932-8389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43길 49 / nowonhaircafe.org



장애인친화미용실 공릉점 ☎02-949-8389
서울시 노원구 삼발로 78, 1층 / nowonhaircafe.org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0길 22 / Tel. 02)971-8387 / madeul.org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섬김의 행복, 나눔의 기쁨”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 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서비스 시간
· 방문요양 1일 3시간(1·2 등급, 4시간)
주 5회 이상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신체청결유지로 건강증진, 식사도움, 체위변경, 보행연습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균형잡힌 식사, 위생관리, 쾌적한 주거공간 유지, 개인활동지원
- 정서지원
정서적 안정 유지

중랑구·동대문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자 모집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힘을 찾아내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능성이 실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영안내

구분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대상	중랑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령기 이후(18세 이상) 발달장애인	
구성	정규반 30명(5개반)	
이용기간	5년	
이용시간	주 5일(월~금, 10:00~16:00)	
이용료	월 200,000원(중식비 및 외부 프로그램비 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는 동행자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꿈을 지지하며 그 권리가 실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안내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장애인가족의 욕구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계획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역량강화 지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역량 향상 및 장애인의 자립을 조력하는 가족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

미래설계 지원 가족중심의 미래 준비를 통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구성원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가족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친화적인 환경을 구성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주 양육자 또는 보호자의 부재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봄과 보호서비스 제공

구분		주간돌봄(06:00~22:00)	주말 및 야간(22:00~06:00)
이용료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이용시간	1회 최소 2시간, 연 64시간	
	비수급가정	시간당 1,600원	시간당 2,400원
	차상위 및 수급가정	시간당 800원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5길 32, 금호프라자 1층 노원장애인지원센터 디딤돌 내
Tel. 02)-6956-5179 / www.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순복음노원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할렐루야!
순복음노원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원로목사 유재필 담임목사 이상용

예배안내	예배시간		
주일예배	07:00	09:00	11:00
	13:00	15:00	17:00
수요예배	10:30	19:00	
금요기도회	20:30		
새벽기도회	05:00		
화요중보기도회	10:30		
목요성령집회	20:00		
매일 낮/저녁기도회	10:30	20:00	
장애인교회예배	10:30	13:00	
외국인선교회예배	13:00		
청년대학선교회예배	15:00		
교회학교예배	11:00		



순복음노원교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440 / Tel. 02)3391-6100~3 / www.fgnc.org

장애인표준사업장
(주) 우리행성



Our Planet Gift Set




고객을 위한 맞춤형 커피 드립백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Our Planet Rent

소모임과 회의 등을 위한 20석 규모의 미팅룸 대여와 이벤트 및 전시회 등을 위해 카페를 대관해 드립니다.

Our 장애인예술단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장애인예술인들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예술단으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장애인예술인에게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합니다.

발굴	기업연계	디자이너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활동 장애인예술인· 지역 복지관 활동 장애인· 기관 추천(한국장애인고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예술단· 고용 희망 기업 발굴· 희망기업에 장애인예술인 추천/장애인예술인 취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전문 훈련 공간· 개인별 맞춤 전문교육/훈련· 외부 전시/행사 활동
		

장애인표준사업장 우리행성은 장애인 예술단원 발굴 및 추천/모집 및 선발/종사자 역량강화/공모전 및 전시 참여 등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술단원의 사회참여 기회와 전문적 기량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 경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서울시 지정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우리행성문화예술단

우리행성문화예술단은 서울시 지정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징과 특별함이 담긴 그림에 주목하여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창작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장애인예술인 발굴	장애인예술인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개최· 장애인예술인 등록 지원· 문화예술분야 참여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의 발달장애인 회원 90명 활동· 장애인예술인의 활동 영역 개발 및 확대· 기획 전시 및 초청 전시
	 

Our Goods

기업·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발달장애 디자이너의 그림을 활용하여 제작합니다.

 소화기	 보냉백	 디자인 골프공	 법랑컵
 극세사 클리너	 마우스패드	 엽서	 연필

사회복지법인 성민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복지관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